가을 단풍의 빛깔에 견주어도
손색 없는 밝고 환한 빛.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더 강한
실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신뢰입니다.

SEAH

세아가족

2018 SEP / OCT

Vol. 327

세아가족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2018 SEP / OCT

선택 + 집중 = 신뢰

COVER STORY

이번 호 세아가족 표지는
세아제강 포항공장 대구경공장에서 촬영하였습니다.
동그랗게 말아 올린 강관의 용접부 이음새를 매끄럽게 다듬는 동안
노란 빛깔, 주황 빛깔의 불꽃이 튀어 오릅니다.

살짝 벌어진 이음새를 뜨거운 열기로 이어 붙이는 과정은
세아의 이름으로 하나되는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연결 부위를 다시 한번 매끈하게 다듬는 공정은
분열과 냉소, 좌절 등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히 깎아내고
견고한 신뢰 속에서 더 강한 실력을 발휘하는 세아인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옳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잘하는 일에 집중하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신뢰의 불꽃이 가을 산을 물들이는 단풍잎처럼
곱고 환하게 마음속까지 번져옵니다.

SECTION 1
희망 더하기

04 - 07 **테마 인터뷰**
한국HR진단평가센터 박재림 대표

08 - 09 **테마 토크**
품질 관리 부서 담당자들의 만남

10 - 13 **테마 스토리**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절대가치, 신뢰

14 - 21 **세아 포커스**
가스텍 2018
세아제강지주 출범식
세아 M&S, IMOA 연차총회 국내 최초 개최

22 - 25 **세아 뮤지엄**
세아의 신뢰 경영

26 - 29 **글로벌 리포트**
SeAH Precision Metal Thailand

SECTION 2
마음 나누기

30 - 33 **팀플레이**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금상 수상 TF팀

34 - 37 **철의 장인**
세아 FS 평택공장 생산팀 임학빈 주임

38 - 41 **세아 로드**
전북 군산

42 - 45 **원데이 클래스**
우리 떡 만들기 체험

46 - 47 **헬스케어**
하체 운동

48 - 49 **세아 뉴스**

50 - 51 **사우동정 / 독자엽서**

발행일 2018년 10월 17일(통권 377호) **발행인** 천정철
발행처 세아홀딩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3 **기획·디자인** (주)더윤호 02 733 0790
인쇄 드림인쇄(주) 02 464 6161 **사진** B.A.M Studio 02 548 1026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뢰 받는 기업의 조건

한국HR진단평가센터 박재림 대표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튼튼히 쌓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온갖 노력을 경주한다.
왜 신뢰를 얻으려고 할까? ㈜한국HR진단평가센터의
박재림 대표는 신뢰야말로 조직문화 혁신의 핵심이며
기업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최고의 촉매제라고 강조한다.

Profile 한국경제신문사와 엘엔아이컨설팅에서 근무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 선정을 총괄했다. 그 후 200여 개 기업의 조직 문화를 진단했고 50여 차례 표적 집단을 인터뷰했다. 현재 인재평가, 조직진단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HR진단평가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 <일하기 좋은 기업>, <신뢰 받는 기업의 조건>, <죽은 조직도 살리는 섬김의 리더십> 등이 있다.

기업에서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뢰가 높은 일터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 직급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 솔직하고 자유롭게 전달하면서 상하 간 토론도 활성화되지요. 열정, 자부심, 도전정신, 주인의식 같은 가치들은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는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주요 가치입니다.

또한 신뢰는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를 예로 들어볼까요? 신용장 제도는 원거리의 거래 상대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지요. 하지만 신뢰가 확보된다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요.

신뢰가 실종되거나 훼손된 시대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 전통사회 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다리 건너서 친인척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 공동의 이익을 저버릴 경우 마을 전체로부터 배척 당하거나 지탄을 받았습니다. 불신행위로 인해 입게 되는 타격이 매우 컸지요. 하지만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등 계약 기반의 공동체에서는 신뢰를 저버리더라도 타격이 그리 크지 않다고 느낍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오늘은 얼마 벌었는지, 내일은 몇 개를 팔 계획인지를 지배적 화두로 급속하게 성장해왔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역량 강화나 신뢰 등은 신경쓸 겨를도 없게 되었지요.

위기 상황에서 신뢰는 조직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축적된 병력이나 무기는 평상시 큰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신뢰도 이와 비슷하지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야말로 신뢰라는 자산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구축된 조직 내부의 신뢰는 위기를 맞았을 때 조직을 굳건히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더욱 질 높은 협력이 가능하며 신속한 시장 대응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요?

기업조직에서 신뢰는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기업이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라면 굳이 공정성을 따질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상사 한 명과 다수의 부하직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에서 상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공정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강도 없을 것이고, 직원들에게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동기를 부여할 수도 없겠지요.

한국사회는 공정성을 가로막는 연고주의가 뿌리 깊습니다. 정(情)이라는 전통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유전자가 쉽게 바뀌지 않아서일 테지요. 물론 퇴근길에 선후배가 포장마차에 들러 사적인 인생 상담까지 하는 일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하다는 이유로 술 마시고 늦게 나와도 눈감아주거나, 실수를 무조건 감싸주려 한다면 조직 내 공정성을 헤치고 신뢰 형성을 가로막게 됩니다.

저서에서 존중과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 역설하셨는데요. 존중과 섬김, 배려 등이 공동체의 신뢰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존중은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즉 부서나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저마다 회사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은 아웃사이더로 남게 됩니다. 사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방관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존중과 섬김의 진정한 의미는 구성원 개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것이지요.

신뢰는 그 힘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신뢰라는 무형 자산의 가치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조직 내부의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기술 평준화, 서비스 표준화로 인해 차별화된 고객만족과 신뢰 구축을 도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기업은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고객을 접하는 구성원들의 애티튜드(Attitude)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고객 서비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고객을 즐겁게 해주고 기분을 맞춰주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신뢰가 쌓이는 것일까요? 큰 기업의 주차장에서 어린 학생들이 매연을 들이키면서도 고객을 웃으며 맞이하는 것을 고객 서비스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고객의 이익에 상충하더라도 기업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바로 세우고, 지향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그 정책에 맞춰 회사를 착실히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더 높은 고객 신뢰를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뢰의 일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아 구성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 드립니다.

신뢰는 그 힘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신뢰라는 무형 자산의 가치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조직 내부의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기업, 부서의 동료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이상적인가 깊게 고민해보는 가운데 공정성 가치에 대한 준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이를 조직 문화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품질로 신뢰를 만들어갑니다

품질 관리 부서 담당자들의 만남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은
우수한 품질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품질은 고객만족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통해
세아의 신뢰를 높여가는
품질 부서 담당자들을 만나보자.

관행과 관습부터 바꿔 문제 재발을 방지합니다

세아 ESAB 품질경영팀 조정제 차장

품질 관리 업무에서 가장 필요한 소신은 '정직'입니다. 제품 평가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거나 조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지요. 이는 자칫 조직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고, 고객을 기만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품질 업무의 범위는 단순히 제품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합격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업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이나 관습을 타파하고 변화시키는 다소 지난한 업무가 뒤따르지요.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위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심층적 원인 탐구로 실력을 키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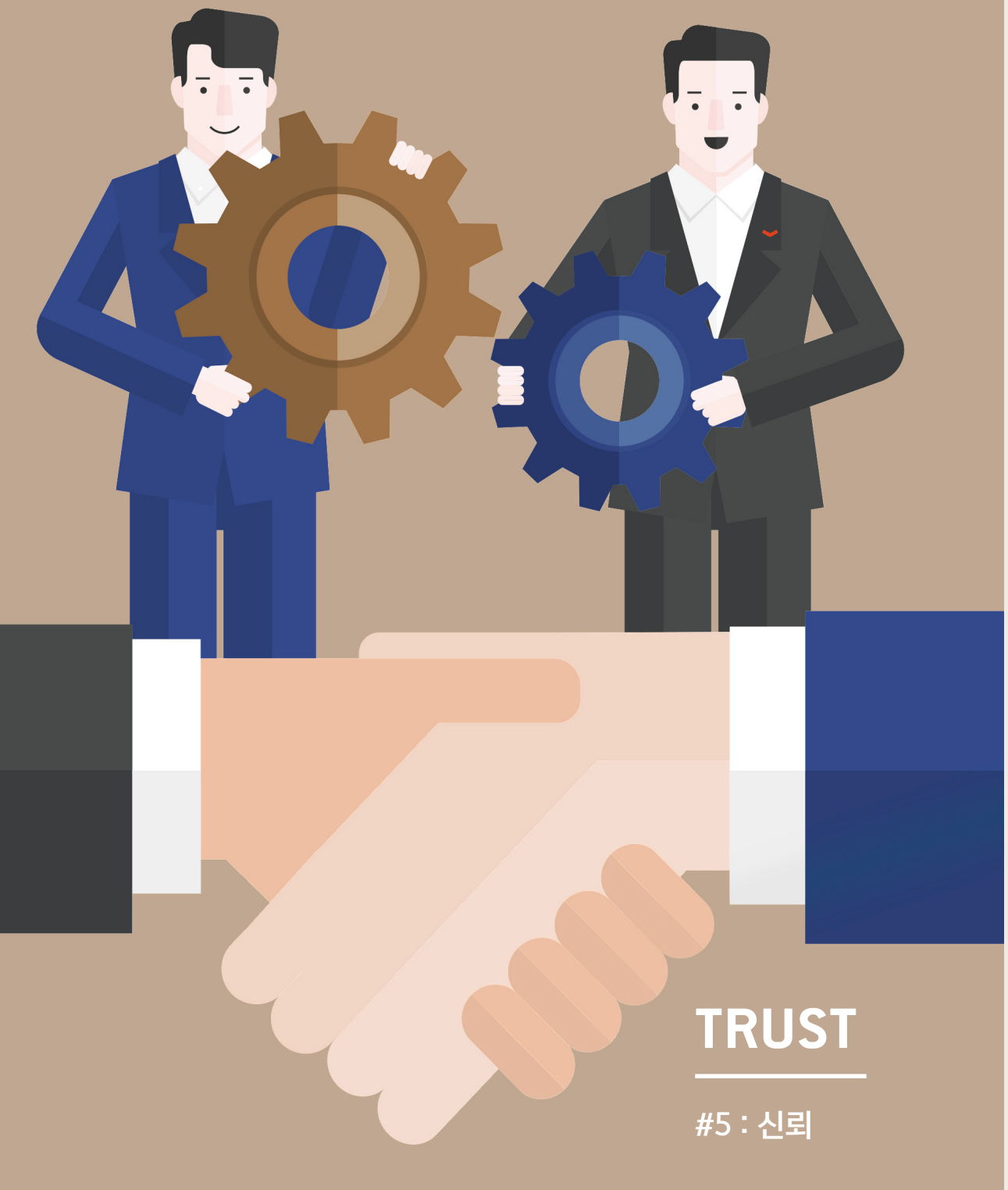
세아메탈 품질혁신팀 이지훈 기사

품질 관리 업무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원가를 더 절감하면서 품질을 유지하는 등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고착화된 현재의 한계를 탈피하여 더 나은 정답을 찾는 것, 그것이 품질 업무 담당자로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지요. 저는 품질 업무 수행을 위해 '5 Why' 기법을 활용합니다. 표면적인 현상만을 고치거나 임시 조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5단계에 걸쳐 심층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집니다. 영업사원과 더불어 품질 직원들은 고객과 일선에서 마주할 일이 많은데요. 실력으로 중무장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고객 대응을 통해 세아메탈과 세아그룹의 품질 첨병으로서 '신뢰' 이미지에 포석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혁신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세아씨엠 품질경영팀 조세훈 대리

품질 관련 부서 담당자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고객중심적 사고를 함양해야 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명확한 기준으로 문제의 원인을 추적해내고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꼼꼼함과 혁신 마인드가 필요하지요. 품질 관리는 원재료 입고부터 제품 생산 후 출하까지 전사 대부분의 인원이 참여해야 하는 일이므로 품질 관리의 중요성과 고객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꾸준히 임직원들에게 심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품질 관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고객만족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단순히 좋은 물건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일 안에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시장 및 고객 요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세아씨엠이 시장의 강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절대가치 :
신뢰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경쟁사회는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를 낳는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세상에서는 가짜 뉴스가 넘쳐난다.
하지만 이런 때일 수록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오해와 불신이 만연한 시대, 신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구성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를 실증하기 어려운 관념적 덕목이라고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애매한 추상적인 감정으로 여긴다. 신뢰가 빠른 성과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실용적 가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기업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지닌 다양한 능력이 갖가지 요리라면 신뢰는 온갖 요리를 떠받치는 식탁과도 같다. 식탁이 크고 튼튼할수록 보다 많은 기술과 능력을 탁자에 올려놓을 수 있다. 반면 전략과 기술이 아무리 획기적이고 뛰어나도 신뢰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며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기업에게 신뢰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신중하게 가꾸어야 할 문화적 토양이며, 적극적으로 터득하고 배양해야 할 관리 기술이다.

낮은 신뢰가 불러오는 높은 위험

아무리 재주 많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일할 경우에는 늘 긴장감이 흐른다. 신뢰가 낮은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게 되고,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에서 팀워크가 저하된다. 매사에 의심을 하게 되면서 업무 처리 속도 역시 느려진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탓에 엄격하게 감시, 통제해야 한다는 의식이 일터를 지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절차와 규정이 늘어난다. 각종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구성원들은 재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 차츰 혁신은 멀어지고 진보는 정체되며 기업의 경쟁력은 위축된다. 신뢰가 없으면 거래도 좀처럼 성사되지 않는다. 영업사원은 번번히 판매 기회를 놓치게 된다.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평판이 나빠진다. 고객이 등을 돌리게 되고 매출과 실적이 감소한다.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원동력

반면 높은 신뢰는 훌륭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준다. 높은 신뢰는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팀워크를 강화시킨다.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하고 점검하느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신뢰가 높은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솔직하게 말하고 현실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한껏 창의성을 발휘한다. 신뢰로 연결된 거래처와 전화 한 통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나 기타 부수적인 일들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신뢰가 높은 기업은 고객에게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뢰의 환경이 낳은 혁신 문화가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혁신과 창의력이 번성하려면 정보 공유, 모험 정신, 안심하고 실수할 수 있는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 모든 조건이 바로 신뢰의 산물이다.

경영의 신, 이나모리 회장이 강조한 신뢰

"저는 언제부터인가 사장과 직원이 서로 신뢰를 쌓는 일이 서류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세라를 세계 100대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파산 위기에 처해 있던 JAL을 흑자 기업으로 만든 이나모리 카즈오 회장.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959년에 교세라를 창업한 이나모리 회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직원들이 모일 수 있는 친목회를 자주 열었다. 친목회의 주요 목적은 경영 철학을 조직에 정착시키고 깊은 신뢰 관계에 바탕을 둔 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 친목회는 단순한 회식이 아닌 구성원 간의 신뢰와 소속감을 높이는 발전적인 자리로 기능했다. 직원들은 친목회를 통해 회사의 주요 사안들을 공유하고,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나모리식 친목회는 지금까지도 교세라를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신뢰의 말들은 우리를 고무시키고,
신뢰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
신뢰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동기부여로써
최고의 능력과 열정을 이끌어낸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뢰 강화

우리는 대개 '진실한 사람, 성실하고 착한 사람' 등 성품의 측면에서 신뢰 수준을 평가한다. 물론 성품이 신뢰에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뢰가 오로지 성품만 기초로 한다는 것은 오해다. 성실하고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반면, 목표를 달성하면 긍정적인 평판을 얻는다. 역량은 신뢰를 살찌우는 주요 요소이며, 제대로 역량을 갖출 때 신뢰는 보다 확고하고 실제적인 우위를 획득한다.

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극심한 환경 변화와 치열한 경쟁으로 대표되는 오늘날 레드오션 시장에서 기업은 가치 전략을 적절하게 선택해 기업의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진심과 일관된 자세가 신뢰의 첩경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 때 우리는 목표를 높이 세우지 않게 된다. 반면 신뢰와 지원은 물론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고 느낄 때는 대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하게 된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 일을 맡게 되어서 안심이네요'와 같은 신뢰의 말들은 우리를 고무시키고, 신뢰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 이렇듯 신뢰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동기부여로써 최고의 능력과 열정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오래된 숲이 불타서 없어지듯 한평생 쌓은 신뢰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신뢰에 관해서는 지름길도, 횡재도 없으며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오로지 진심을 바탕으로 일관된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신뢰의 첩경이다.

참고 서적 : 제프리 지토머 <비즈니스는 신뢰다>

그룹 최초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가스텍(Gastech) 2018

세아는 세아브랜드관리위원회의 브랜드 활동 일환으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가스텍(Gastech) 전시회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과 INOX TECH은 함께 공동 부스를 세우고
세아의 세계적인 사업 역량과 기술력을 선보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 산업 전시회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 가스텍 2018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Fira Gran Via에서 열렸다. 가스텍은 1972년 런던을 시작으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는 오일 & 가스 산업 컨퍼런스 및 전시회로, 세계가스총회(WGC), LNG 컨퍼런스와 함께 세계 3대 국제 가스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 DMG Events가 주최한 이번 제 30회 가스텍 행사는 전시장 규모만 해도 50,000m²으로 축구장 7배 크기에 달한다. 올해 가스텍에는 쉘(SHELL), 엑손모빌(EXXONMOBIL), 노바텍(NOVATEK), 카타르 석유법인(Qatar Petroleum)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비롯하여 EPC 업체인 치요다(CHIYODA), JGC, 플루오르(FLUOR), 포스터 휠러(FOSTER WHEELER), 벡텔(BECHTEL) 등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약 700개 이상의 석유, 가스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했으며, 전시 기간 중 약 3만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했다. 국내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참가했다.

세아의 정체성을 담은
그룹 최초 공동 참가 부스

이번 전시회에서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INOX TECH이 공동 부스를 마련했다. 부스의 규모는 170.5m²으로 지난해 도쿄 가스텍 행사에 참여한 세아제강 부스와 비교해 약 2배 가까운 웅장함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3면 개방형으로 설계된 세아 전시관은 '전 세계 LNG 산업을 아우르다'라는 콘셉트로 꾸며져 각 계열사 제품의 우수성과 그룹의 실력을 알렸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연결된 용광로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세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또한 각 사의 제품을 관람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하여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홍보했다. 아울러 태블릿 PC와 브로슈어를 통해 관람객들이 계열사 정보와 제품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가스텍에서는 기존 전시회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그룹사 현장의 모습과 소리를 담은 '철의 울림' 영상도 소개됐다. 특히 영상 관람 환경을 강관 모양을 본뜬 돔 형태로 꾸며 마치 영화관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아만큼 같이 한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나타내면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구현한 부스는 그 동안 없었습니다."

가스텍 주최측에서는 이같은 극찬으로 세아의 전시관 홍보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룹 통합 전시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전시 첫날부터 세아는 골프 퍼팅 대회와 과일소주 시음 이벤트를 열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또한 자개무늬 거울, 세론이 기념품, 라이징커브 소주잔, 복주머니 등의 기념품도 활용하여 세아를 홍보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임을 알렸다. 관람객이 가장 많은 둘째 날에는 INOX TECH이 위치한 이탈리아 베네토주에서 생산한 와인을 방문객에게 제공함으로써 INOX TECH 홍보와 함께 세아 계열사 및 사업군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그룹 통합으로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스텍에 여러 계열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세아'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PM 역할을 수행한 세아홀딩스 이유진 대리는 이번 전시 참여를 통해 거둔 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각 계열사의 전시 담당자들 역시 '대외적으로 세아를 더 알릴 수 있던 기회였으며, 내부적으로도 다른 세아 계열사의 사업군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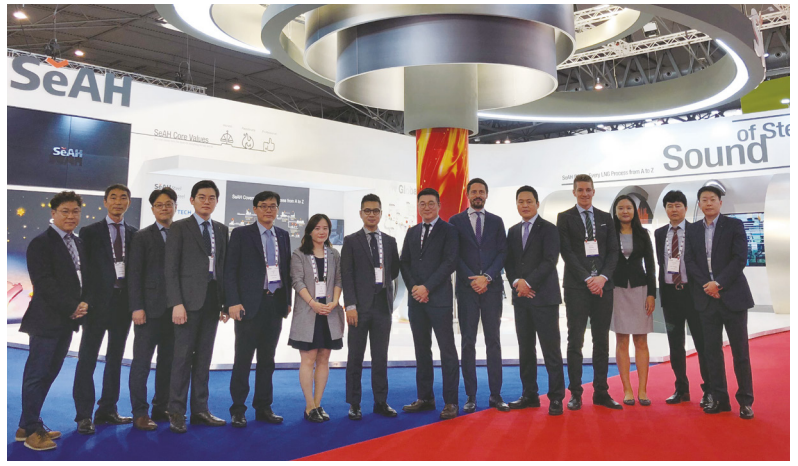
"만나기 어려운 Job Owner사와 EPC 담당자들을 만나 글로벌 시장 동향을 피부로 느꼈고, 다양한 제품 등 세아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세아제강 송정현 사원은 이번 전시 참여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세아창원특수강 배종암 차장은 '그룹사와 함께 전시에 참가하며 고객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판매기반 확대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번 전시가 'SeAH 그룹의 시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였다'고 전했다.

세아베스틸 장치모 팀장 역시 '앞으로도 효과적인 세아 브랜드 홍보 및 그룹사 시너지 창출을 위해 그룹 통합 전시 참여를 꾸준히 이어갔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가스텍 2018을 통해 세아는 고객사 및 관계사 사업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향후 교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세아는 세계적인 전시회 참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새로운 닻을 올리다

세아제강지주 출범식

세아제강이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세아제강지주'와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세아제강'으로 분할하며 지주회사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9월 3일, 세아제강지주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RYSE 호텔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해 지속 성장을 추진해나갈 새로운 닻을 올렸다.

투자와 제조 부문 분할로 전문성 강화

세아제강이 세아제강지주와 세아제강으로 분할하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로써 세아제강지주는 자회사 관리 및 신규 사업 투자에 집중하고, 분할 신설회사인 세아제강은 강관제조 및 판매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국내 강관시장은 이미 오래 전에 포화상태에 들어섰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등 통상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세아제강은 해외 생산기지 확보 및 신규 투자처 발굴, 공격적인 M&A 추진 등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판재사업부(현 세아씨엠) 분할, 국내외 법인 신설 등으로 자회사 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외 계열사를 더욱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기업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기존 세아제강의 투자·관리 기능 및 제조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각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주체제 전환 의미를 공유하는 출범식 개최

9월 3일, 서울 마포구 RYSE 호텔에서 세아제강지주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출범식에는 세아제강지주 임직원을 비롯하여 지주회사체제 출범을 위해 함께 수고한 NH투자증권, 태평양법무법인,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지금의 환경에 맞는 경영체제가 필요했습니다."

이날 남형근 세아제강지주 대표이사 상무는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세아제강지주의 역할에 대해 '국내외 자회사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세아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초로 강관 사업을 시작하고 국내 최초 강관 수출, 부산 지역 최초 기업 공개 등 세아제강은 지금까지 과감한 변화를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온 변화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세아제강 이휘령 부회장도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선택한 오늘의 변화가 성공에 이를 때까지 모두가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나갈 것

새롭게 출발하는 세아제강지주는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서 운영된다. 조직은 대표이사 산하에 성과관리팀, 신수요개발팀, 투자관리팀, 재무관리팀 등 4개 팀과 감사실, 윤리경영사무국 및 준법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세아제강지주는 국내외 다양한 시장 상황의 변화와 이슈에 항상 주시하며 국내외 계열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전략 기능을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국내외 계열사에 자생적 전문성을 부여함으로써 각 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국제 몰리브데넘 협회 회원사가 한 곳에

세아 M&S, IMOA 연차총회 국내 최초 개최

세아 M&S가 국제 몰리브데넘 협회 연차총회인
IMOA (International Molybdenum Association)를 국내 최초로 개최했다.
행사를 찾은 각국의 IMOA 참가사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몰리브데넘 시장을 전망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호 교류 및 성장 발판을 위한 자리

제 30회 IMOA 연차총회가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및 세빛섬에서 개최됐다. IMOA는 세계 30여 개국 60여 개 회원사가 가입한 국제 몰리브데넘 협회로 특수강 및 스테인리스강의 생산을 위해 첨가하는 핵심 재료인 몰리브데넘 산업에 대한 통계, 기술 분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광산업체 클라이맥스(Climax), 코델코(Codelco), 글렌코어(Glencore) 등을 비롯, 전 세계 몰리브데넘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국제시장에서 한국 몰리브데넘 산업의 역할에 대한 뜻을 모으고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는 IMOA 연차총회가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아 M&S는 연차총회 한국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관련 산업의 상호 교류 및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호스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제 몰리브데넘 시장에서 세아 M&S의 영향력 입증

이번 연차총회는 철강과 비철 분야의 전문가들이 준비한 세션 및 업계 컨퍼런스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9월 5일에는 세빛섬에서 국내외 광산업체 및 수요가, 트레이더들이 시장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별도로 마련됐다.

"세아그룹 계열사인 세아 M&S가 IMOA와 함께 본 행사를 공동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순형 회장은 축하사를 통해 이렇게 말하며 '이번 행사가 몰리브데넘 산업의 성장과 회원사들의 성공적인 사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세아 M&S 마정락 대표가 참가자들의 서울 방문에 대해 환영의 인사와 함께 건배를 제의했다.

"이번 행사로 우리 모두가 더욱 강하고 발전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세아 M&S가 준비한 퍼포먼스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신명 나는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더했다. 참가자들은 공연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만찬을 즐겼다.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IMOA 연차총회를 계기로 향후 한국 몰리브데넘 산업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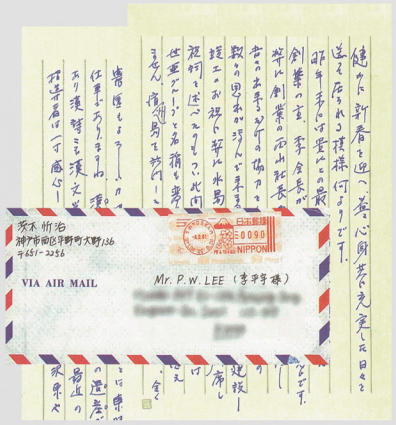
또한 세아 M&S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몰리브데넘 시장에서 영향력을 입증했으며,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이 영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주주, 고객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해암 이종덕 회장.
그의 창업정신은 58년 신뢰 경영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겸허의 창업정신을 지키며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강관산업을 선도해온 세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정도 경영을 실천하고 고객과 더불어 발전해온
세아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올바른 기업 문화에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세아의 신뢰 경영

신뢰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고객에게 사랑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온 세아.
거래처와 돈독한 우의를 쌓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온
세아의 역사를 옛 사보를 통해 들여다 봅니다.



2001년 4월 사보 가와사키제철 이바라기 사장이 故 이종덕 회장을 추도하며 보내온 서신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바라기 사장은 서신에서 '이 소중한 인연을 풍화시키는 말자'는 표현으로 양 사의 유대를 강조하였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경영

창업주 해암의 경영 신념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뢰 경영'이었습니다. '한번 믿으면 모든 것을 맡긴다',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해암의 신념. 그 믿음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제철(현 JFE)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산철관공업(현 세아제강)은 창업 직후 가와사키제철과 인연을 맺은 이래 계속하여 열연코일 수입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부산철관공업은 생산에 필요한 열연코일의 대부분을 가와사키제철에서 조달하였으며, 가와사키제철은 열연코일의 공급이 여의치 않을 때에도 부산철관공업에 우호적으로 원재료를 할당해주었습니다. 양 사의 우호적 관계는 경연진의 교류로 이어져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였으며, 이러한 유대는 반세기가 흐른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9년 6월 사보 지속적인 품질 관리 및 표시 인증 획득으로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품의 신뢰를 높인 부산파이프. 사보 뒷면의 광고를 장식한 세계 각국 품질 규격 표시허가 인증 마크가 당당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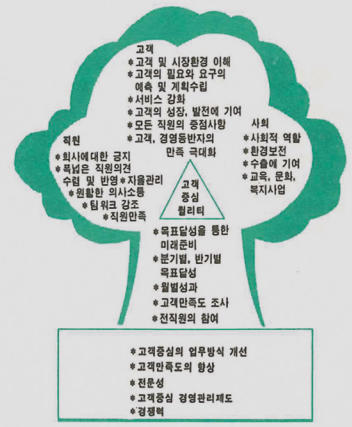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경영

1964년부터 부산철관공업은 제품 규격과 검사 규격을 만들어 본격적인 품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는 이듬해 부산 지역 최초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KS) 획득이라는 성과를 견인하였고, 얼마 후 국내 최초로 강관 수출하는 개가를 이루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부산파이프는 종합적인 QC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정기적인 시장품질조사, 수요자 요구 품질조사를 실시하며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내 QC촉진대회, TQC교육 등을 통해 QC사상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집중한 결과 1982년 6월 29일, 부산파이프 서울공장과 포항공장이 강관 업체로는 처음으로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품질 관리 1등급 공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덕분에 부산파이프는 수출품 검사를 면제받게 되어 상당한 금액의 수출품 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중심 경영

부산파이프(현 세아제강)는 1989년을 고객서비스 강화의 해로 선포한 데 이어 1993년에는 '고객 중심의 품질경영체제 확립'을 경영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 품질 향상,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구해 고객만족을 도모하는 QM (Quality Management)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상품, 생산, 영업, 관리, 기업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QM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부산파이프는 한국철강신문과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가 1994년 9월부터 두 달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한 '철강, 비철금속 제조업체에 대한 수요가 평가' 조사에서 강관 제조판매 부문 고객만족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부산파이프는 재질, 표면, 외관, 형상, 다양한 수주 조건, 클레임 처리의 신속성, 대 고객서비스 등에서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부산파이프 품질 및 서비스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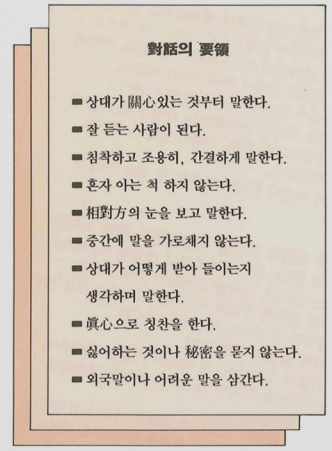


1993년 3월 사보 '고객중심의 품질경영'을 테마로 한 기획 특집 기사가 사보에 게재되었습니다. 특집 기사는 '고객 입장에 서는 것이 경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고객만족 나무 이미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고객중심 경영의 목표와 효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였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윤리경영

2005년 1월 1일, 세아는 경영의 투명성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기업만이 21세기에도 생존, 영속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윤리경영을 도입하였습니다. 윤리경영의 출범은 창업 반세기의 장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그룹 경영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다짐이자 결의의 표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아는 기업 윤리 헌장을 선포한 데 이어 윤리 헌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행동의 기본 방향을 명시한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사이버 윤리교육, 윤리강령 실천 지침서 발간 등을 통해 전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이후 세아는 '정직, 열정, 실력'의 3가지 핵심가치를 기업의 나침반으로 정하고, 감사와 겸허, 언행일치, 주인의식 등 9가지 행동강령을 실천하며 신뢰의 기업으로서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1990년 9월 사보 직장생활과 업무상식 코너에서 세아인들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언행을 소개하였습니다. 10가지 대화의 요령 외에도 '겉으로만 친절한 체 하는 진실성 없는 말은 오히려 신용 없는 사람이 될 뿐' 등의 구절을 통해 참된 마음과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Khao Yai National Park in Thailand

글로벌 TSW 튜브의 생산 허브가 되겠습니다

SeAH Precision Metal Thailand

글 : 타이세아 경영관리부 옥치명 과장

높은 영업이익률 달성, 최대 실적 기록 등 그간 사보를 통해
희소식을 알려온 SeAH Precision Metal Thailand (이하 타이세아)가
또 한 번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동남아시아 튜브 가공 시장에서
신시장,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곳.
글로벌 생산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타이세아의 소식을 만나본다.

생산량은 늘리고, 판매 시장은 넓히고

안녕하세요. 타이세아 경영관리부에서 회계, 구매,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옥치명 과장입니다. 2016년 초, 세아가족을 통해 타이세아의 소식을 전한 지 어느덧 2년여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간 타이세아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2016년 말, 기존 2대였던 TSW 튜브 조관기를 1대 추가로 들여놓았고,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량이 늘어나며 인도, 베트남으로 판매 시장을 넓혀가고 있지요. 2017년부터는 세아창원특수강 제품도 중개 무역을 통해 판매하며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세아에는 주재원 3명을 포함하여 정직원 310명, 외주용역 90명으로 총 400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또한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의 주재원 2명도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혁신을 추구합니다

태국은 한국과 달리 차량이 좌측 통행하는 나라입니다. 운전석도 차량 오른쪽에 있고 방향지시등과 와이퍼 작동 버튼이 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국에서 처음 운전했을 때 방향지시등 대신 계속 와이퍼를 작동하게 되어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 직장 내 대인 관계 등에서도 한국과 태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나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 무조건 한국식 업무 방식을 적용할 수 없지요. 타이세아는 한국과 태국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혁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이세아의 업무 원칙도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자'입니다.

관광과 축제의 나라, 태국

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파타야, 푸켓과 같은 바닷가를 많이 찾으시는데 저는 오히려 산림 지역인 카오야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200Km가량 떨어져 있는 카오야이는 서울 면적 4배 정도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울창한 숲, 폭포 및 다양한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태국 내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은 이곳은 포도 재배가 가능하여 다수의 와인 양조장도 위치해 있지요. 또한 4월 중순에 열리는 태국에서 제일 큰 명절인 '송크란 축제'도 추천합니다. 4월은 태국에서 가장 무더운 시기로,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서로 물을 뿌리며 더위도 식히고 복을 기원합니다. 한국의 설날과 같은 명절이기에 대부분의 기업은 이때 휴가를 갖고, 태국인들은 고향에 내려가 가족을 만나며, 많은 관광객들이 송크란 기간 동안 태국을 방문하여 축제를 즐깁니다.

Songkran Festival

설비 확충 통해 경쟁력을 높여갑니다

올해 태국은 자국 시장의 포화 상태 및 바트화 강세로 냉장고 생산량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중국, 대만의 일본계 가전업체 인수에 따른 가격 우선 정책으로 저가의 인도산,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중국계 가전 부품 업체가 튜브 가공 사업 진입을 시도하며 경쟁이 한층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타이세아는 현재 태국과 베트남 튜브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이삼성의 PFC (Parallel Fin Condenser)의 양산 일정이 연말로 예정되어 있어 내년에는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말, TSW 튜브 조관기가 1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향후 1대를 추가하여 타이세아는 총 5대의 조관기를 운영함으로써 튜브 원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원가 경쟁력은 세아 FS의 지속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타이세아는 조관 설비 확충을 통해 현재 판매중인 동남아, 인도, 중동, 멕시코 등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나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있는 TSW 튜브 제조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면 새로운 내일이 보입니다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금상 TF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한 줄기 바람처럼 어제와 다른 세아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다.
공구강 평강 제조 공정의 최적화로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금상을 수상한 10명의 TF 팀원들을 만나본다.

해외 선진사 수준의 품질 수준 구축

공구강은 말 그대로 가공용 공구나 부품을 생산하는 금형에 사용되는 강철을 말한다. 쉽게 마모되지 않도록 탄소를 비롯한 다양한 원소를 첨가하여 강도를 높인 강종으로 이를 평평한 직육면체 형태로 생산하는 것이 공구강 평강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지난해 공구강 평강의 형상 및 외관 품질을 개선하며 우수한 품질 수준을 구축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의 주력 상품인 공구강 평강의 국내 시장 방어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대형압연팀 박봉준 팀장이 프로젝트 추진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문을 연다.
최근 해외 경쟁사가 국내 시장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일본산 고급재 및 중국산 범용재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믿음과 협력으로 뭉친 팀워크

2016년 1월 TF팀이 꾸려졌다. 대형압연팀 박봉준 팀장, 강성식 과장, 김진수 주임과 3제강팀 단조파트 최상민 과장이 공구강 평강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였다. 압연설비팀 성익경 총괄, 고성호 부총괄, 배성준 대리와 생산관리팀의 김성호 과장, 변정섭 사원, 공정연구2그룹 박상훈 선임연구원도 팀에 합류했다.

이들은 공구강 평강 측면의 직각도 열위 등 그간 고질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 온 품질 문제를 자체적인 제조 공정의 혁신으로 해결하며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덕분에 수율이 대폭 향상됐다. 지난해 제조 원가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절감했다. 안정적 품질과 원가 경쟁력으로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커다란 성과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10명의 TF팀원들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신년회의에서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금상 수상의 영광도 품에 안았다.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하고 서로를 믿고 협력한 덕분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성호 과장이 프로젝트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3제강팀의 최상민 과장도 '각 공정별 담당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임을 강조한다.

조언에 귀 기울이며 현장과 한 몸처럼

평강 직각도 개선을 위해 박봉준 팀장은 공정연구센터 담당자들과 함께 해외 평강 제조 선진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소재를 위아래에서 잡아주는 가이드 시스템의 문제라는 선진사의 의견을 공정에 적용해보았다. 직각도는 개선됐으나 가이드 접촉에 의해 소재 표면에 찍힘 현상이 발생했다. 표면 결함 발생률이 증가했고 모두의 신경이 곤두섰다. 이때 박건훈 이사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었다. 박 이사의 조언과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가이드 재질과 폭을 바꿨다. 수수깡과 찰흙을 이용해 모형을 만들어보고 공정 과정을 예측하고 도식화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테스트 진행을 위해 연일 밤을 새웠다.

"평강 작업이 있는 날에는 팀원들과 거의 현장에서 살았지요."

강성식 과장이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선진사 수준의 직각도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생각

혁신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들의 프로젝트도 그러했다. 소재 표면에 존재하는 결함을 제거하는 데 압연 전 열 처리와 연마가 꼭 필요할까? 기존 방식에 대한 의구심은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생각을 가능케 했다. 공정 별로 열을 가하고 식히는 과정에서 열 변화로 인해 오히려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과감하게 연마와 압연 전 열 처리를 생략하고 제강-단조-압연까지 냉간 공정 없이 뜨거운 상태로 소재를 투입하는 열간장입(HCR)을 실시했다. 공정 축소로 인해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재 단계부터 검사를 강화했다. 강괴 깨짐 등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열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결함 분석을 위해 단조 직후 뜨거운 상태의 슬래브를 계속 육안으로 관찰하다 보니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박상훈 선임연구원의 이야기에서 그간 이들의 고충이 그려진다. 이 밖에도 최종 압연 전 절단을 생략 또는 축소하며 실수율이 개선됐다. 공정 단축으로 빠른 납기도 가능해졌다.

국내 시장 수성을 넘어 세계 시장을 향해

설비의 '제 모습 찾기'도 진행됐다.

"설비가 제 성능을 내야 제품도 잘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호 부총괄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프로젝트에 임했다'며 이렇게 말한다.

"최초 설치 당시의 모습으로 설비를 정열하고 조업 방식에 맞춰 틀어진 부분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김진수 과장도 설비 제 모습 찾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한편 성익경 총괄은 공구강 평강 제품이 세아창원특수강 매출 증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좋은 설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현재 국내에서 공구강 평강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아창원특수강이 유일하다. 하지만 해외 경쟁사의 도전으로 시장 상황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공구강 시장 우위를 수성하기 위해 품질, 가격, 납기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양질의 제품 공급과 안정적 납기를 통해 '고객 만족과 신뢰를 높여가겠다'는 팀원들의 다짐. 이들의 굳은 마음처럼 세아창원특수강의 공구강 제품이 국내 시장 수성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거침 없는 행보를 써나가기를 바란다.

세월의 더께만큼 무거워진 책임감

세아 FS 평택공장 생산팀 임학빈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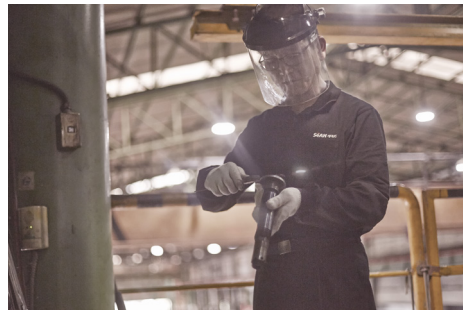
임학빈 주임이 스물일곱의 나이로
부산번디에 입사한 지 어느덧 서른 한 해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회사의 이름은 부산번디에서 한국번디로,
다시 세아 FS로 바뀌었다. 작업 환경이 달라졌고
평택공장의 생산 품목이 변경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늘 이곳, 평택공장과 함께했다.

31년 경력의 메달리스트

"시간이 참 빠르네요."
지난 시간을 헤아리며 임학빈 주임이 말문을 연다.
자신이 만든 제품이 자동차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자부심에 즐겁게 일했노라고.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다고 그는 말한다.
1987년에 입사하여 도금 전처리 업무부터 절단, 포장 업무까지 두루 거쳤다.
3년차에는 연속 도금 라인 관리도 맡게 됐다.
1998년에는 품질경진대회 전국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후에도 은메달을 차례로 따냈다.
그가 받은 메달이 지금도 세아 FS 회의실 한 편을 장식하고 있다.
2005년에는 버티컬 타입 갈바늄 (Galvalume) 도금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TF팀을 이끌기도 했다.
"제가 일복은 타고 났어요. 소띠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 동안의 성과의 비결이 '그저 타고난 일복 덕분'이라고 말하는 임학빈 주임.
하지만 그가 지금껏 쌓아 올린 성과들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빼곡하게 채운
그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고단했던 어제가 오늘의 긍지로

연속 도금 공정에서 일하던 시절,
굴지의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제품을 받아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곤 했다.
갈바늄 도금 설비를 처음 도입했을 때도,
그 설비에서 제품이 처음으로 양산되던 순간도
여전히 잊을 수 없다.
"지금은 작고하신 김시원 부회장님이 처음 나온
갈바늄 도금 제품을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니셨습니다.
그 모습에 무척 감동을 받았었지요."
당시를 떠올리며 임 주임의 눈빛이 아련해진다.
지금 근무하는 하이코아 공정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설비라서
누구 하나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다.
TF 팀원들과 머리를 싸매고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는 날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었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긍지가 되었습니다."



장기근속의 비결은 아내의 내조

임학빈 주임은 장기근속의 비결을
'경영진에 대한 신뢰와 동료애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아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병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모친을 10년 가까이 극진히 모신
아내 덕분에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아내에게 가장 고맙다고 말하는 임 주임.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며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회사에서 사연을 알고 저에게 효행상을 주셨었지요.
하지만 그 상은 아내가 받아야 마땅한 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다.
내년이면 결혼 30주년이다.
아내와 둘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아내는 자꾸만
아이들도 모두 데리고 가자고 한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데리고 가든
아내 뜻에 무조건 따를 것'이라는 임학빈 주임.
그의 목소리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

**고민 없이 일하는 것과
한 번 더 생각하고 일하는 것의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현장은 여전히 즐거운 과제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그의 원칙은
'남 탓하지 않는 것'이다.
후배 사원들에게도 '앞 공정에서 실수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공정에서 그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품질이나 비용 절감 면에서도
고민 없이 일하는 것과
한 번 더 생각하고 일하는 것의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남 탓만 하고 핑계를 대다 보면 발전이 없지요."
후배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일에 관심과 애정을
갖길 바란다는 그의 당부에 힘이 실린다.
정년이 머지 않았다.
연속도금 공정을 떠나올 때
작업 노하우를 작성해서 남기고 왔듯,
지금 일하는 공정에 관한 노하우도
잘 정리하여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싶다.
그 밖에는 정년 이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하루하루 집중하고
해결하느라 정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는 여전히 땀 흘려 일하는 현장이 즐겁고,
아직 현장에는 임학빈 주임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옛 시간 속으로 떠나는 근대문화유산 투어

전북 군산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꽤 실감나게
상상해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전북 군산에 있는 '시간여행마을'이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행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조금은 다른 여행,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여행도 의미 있지 않을까?
세아의 여러 가족들을 품고 있는
군산으로 향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옛 군산세관

1930년대 일제강점기로 떠나는 시간여행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거주와 수탈을 위해 어떤 건물과 시설을 짓고 이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곳은 현재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그 흔적을 대부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 군산에 가면 당시 일본 스타일로 지어진 주택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 수탈에 사용된 대형 창고, 도로, 터널 등이 꽤 생생하게 보존돼있다. 그야말로 1930년대 일제강점기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다. 일제는 전라도 곡창 지역의 쌀을 쉽게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군산을 수탈의 거점으로 삼았다. 상처가 많은 곳이지만 이제는 '아픈 과거도 우리의 역사'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시간여행마을'로 칭하기에 이른다. 군산에서 열리는 시간여행축제는 작년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었다. 아픈 역사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대면하고 치유해야 할 대상임을 군산 시간여행마을은 말하고 있다.

걷다 보면 속속 보이는 일제의 흔적

군산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이 더욱 좋은 이유는 볼거리들이 서로 모여있기 때문이다. 반나절쯤 잡고 걷다 보면 일제의 흔적이 속속 나타난다. 뚜벅이 여행으로도,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손색이 없다. 먼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시간여행을 위한 사전 지식을 쌓는 것으로 여행을 시작하자. 박물관 옆에는 1908년에 세워진 '구 군산세관'이 있다. 멀리서도 확연히 눈에 띌 만큼 이국적인 이 건물은 대한제국의 예산으로 독일인이 설계한 것으로, 국내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 하나이다. 당시 대한제국은 군산항을 드나들던 물품에 세금을 부과해 나라 경제를 일으키고자 했으나,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헐값으로 물품을 사가는 곳이 되고 말았다.

다음 코스는 해망굴이다. 일제가 1926년 물자를 쉽게 반출하기 위해 뚫은 터널인 해망굴은 한국전쟁 때는 군산 주둔 북한군 지휘본부가 자리해 연합군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유심히 보면 총기 발사로 인한 구멍 자국이 보인다.

위에서 자전거를 타며 섬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도 있고, 도보길을 걸으며 서해안 낙조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도 있다. 군산의 먹거리인 짬뽕, 꽃게장, 장어탕도 먹고 가야 아쉽지 않다.

시간여행을 하고 나면 일제강점기가 어느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 십 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내가 겪었을 뻔한 아찔한 현실로 다가온다. 여행은 대개 힐링과 일탈을 위해 떠나기 마련이지만, 가끔은 이렇게 잔상이 오래 남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여행도 의미가 있을 듯 싶다.

SeAH in Gunsan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522
063-460-8114

세아씨엠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241
063-469-8500

세아제강 군산공장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로 52
063-460-7500

세아 L&S 군산지점
전북 군산시 외항로 839
063-468-5820

여운이 유난히 오래 가는 여행

시간여행마을 인근에 있는 경암동 철길마을에서도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군산역과 신문 용지 제조업체를 연결하는 2.5km의 철로가 생기면서 만들어졌다. 지금은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는 않고, 추억의 거리로 재탄생했다. 이곳에서 옛날 교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거나 연탄불에 쫀드기를 구워 먹으며 추억에 잠겨보자. 시간여행만 하고 가기 아쉽다면 하룻밤 더 머물며 고군산군도로 섬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등을 연결한 다리

전통을 담고 정성으로 빚는다

우리 떡 만들기 체험

세아베스틸 해외영업팀 장치모 팀장 가족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여름 더위에 달아났던 입맛이 돌아오는 계절.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세아베스틸 해외영업팀 장치모 팀장 가족이
우리 떡 만들기 체험을 위해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의 집을 찾았다.

대학 동기로 만난 동갑내기 부부

이른 새벽부터 서둘렀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열차를 타고 온 장치모 팀장 가족은 부족한 잠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다. 주말 나들이를 겸하여 나선 오늘 체험이 소풍처럼 설렌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잖아요. 아이들이 전통 떡을 직접 만들어서 맛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치모 팀장이 체험에 참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낸다.

장 팀장과 아내 노윤희 씨는 대학 동기로 처음 만났다. 올해 나이 마흔의 동갑내기 부부는 스무 살 청춘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에 걸쳐 서로를 알아온 셈이다.

"팀 업무 특성상 자주 해외 출장을 가는 편인데, 제가 집을 비운 동안 아내 혼자 어린 두 아들을 돌봐야 했죠.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고요."

한 달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남편 몫까지 아이들을 정성으로 키워준 아내에게 장 팀장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먹성 좋은 큰아들과 주관 뚜렷한 막내아들

열 살 큰아들 현승이와 여덟 살 지호는 우애가 좋다. 두 살 터울에 한창 치고 받고 싸울 나이지만 좀처럼 다투지 않는다. 서로 토라져도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함께 노는 사이 좋은 형제다.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지닌 현승이는 엄마, 아빠에게는 응석 부려도 밖에서는 의젓하게 제 할 일을 책임지는 듬직한 소년이자,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가리는 것 없이 골고루 잘 먹는 먹성 좋은 아들이다.

"크게 쌈을 싸서 먹는 모습을 보면 개그맨 김준현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부모에게 자식의 잘 먹는 모습은 세상에 견줄 것 없는 큰 기쁨일 터. 아들의 먹성을 소개하는 아빠의 표정이 흐뭇하다.

형과는 달리 지호는 편식이 심하다. 채소와 과일을 스스로 입에 넣는 법이 없다. 아빠를 닮아 성격이 곧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굽히지 않는 주관이 뚜렷한 아이다. 장래희망도 경찰이나 검사, 판사와 같은 법관이 되는 것. '나쁜 사람들을 벌 주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정의로운 소년이다.

또래 아이들보다 습득 능력이 빠른 지호는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 요즘은 중국어와 형이 공부하는 영어도 배우고 싶어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이날 체험에서는 떡의 모양을 잘 빚어내기 위해 찰기가 강한 찹쌀 대신 멥쌀 반죽을 이용하기로 한다. 떡 반죽은 멥쌀 가루를 찐 것과 호박 가루, 쑥 가루를 넣은 것까지 세 가지 색으로 준비됐다.

"쑥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떡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두 아이의 호기심 어린 눈이 빛난다.

먼저 주머니떡부터 배워본다. 밀대로 얇게 민 반죽을 네모난 틀로 찍어 잘라낸다. 그 위에 둥글게 말아 놓은 팥소를 올리고 대각선 방향의 모퉁이를 들어올려 모은다. 초록색, 노란색 쌀 반죽을 쌀알 크기로 떼어 장식해주면 한입 크기의 예쁜 주머니떡 완성! 처음엔 어려워하던 현승이, 지호의 손길이 조금씩 익숙해진다.

바람떡 만드는 방법은 한결 간단하다. 쌀 반죽으로 팥소를 감싼 후 둥근 틀로 찍어 잘라내면 금세 봉긋한 모양의 바람떡이 만들어진다.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현승이가 야무진 솜씨로 진지하고 차분하게 떡 만들기에 집중한다.

꽃처럼 어여쁘고 참기름처럼 고소한 시간

마지막으로 꽃산병을 만들어볼 차례. 꽃산병은 떡 위에 꽃을 얹은 것 같이 모양이 예쁘다 하여 이름 지어진 떡으로, 옛 궁중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연회를 할 때 내던 귀한 음식이다.

먼저 당구공 크기로 반죽을 동그랗게 빚는다. 엄지손가락으로 반죽 가운데를 움푹하게 누른 후, 팥소를 넣고 오므려 떡살로 납작해지도록 찍는다. 한자 길(吉)을 형상화한 모양, 수복강령을 상징하는 목단 꽃, 인생이 잘 굴러가라는 의미가 담긴 수레바퀴 등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다양한 떡살의 문양이 떡 위에 새겨진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보기 좋게 올린 떡 위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윤기와 고소한 맛을 더해주면 오늘의 체험 완료!

행복하고 건강한 만사형통 가족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가'라는 물음에 그저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로 불리는 친근한 존재였으면 좋겠다고 답하는 장치모 팀장. 그런 그에게 오늘 체험은 아이들과 한 뼘 더 가까워지는 좋은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바쁜 아빠의 빈 자리를 온전히 채워주는 엄마, 아이들의 어떤 고민이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어요"

윤희 씨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아이들에게 다정한 눈길을 보낸다.

곱게 빚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자 팥소의 달콤함과 멥쌀 떡의 담백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진다.

체험을 마친 후, 정성껏 만든 떡을 예쁘게 포장하여 한국의 집을 나서는 장치모 팀장 가족. 이들 네 사람이 꽃산병 위에 새긴 문양처럼 늘 길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길 기원해본다.

한국의 집 : 서울 중구 퇴계로36길 10 T. 02-2270-1125

발걸음 가벼워지는 가을 다이어트

하체 운동

하늘은 높아지고, 산들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은 운동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지요.
세아 피트니스 이흥표 매니저가 알려주는 하체 운동으로
발걸음 더 가벼운 가을 나들이에 나서보면 어떨까요?

이흥표 매니저는 운동처방 1급,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2급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로 전국체전 복싱 종목에서 경기도 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1997년 춘계전국보디빌딩선수권대회에서 -60kg급 3위, 2000년 YMCA 보디빌딩대회 -65kg급 2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세아 피트니스 센터에서 세아인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하체 운동은 왜 필요한가요?

다리와 엉덩이 근육은 인체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하체 운동은 근육량 증가는 물론 체지방을 줄이는 데에도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체 근육을 적절히 사용하는 운동은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피로감, 무기력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하체 운동에 소홀할 경우 늘어난 체중으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거나 걷고 계단을 오르는 등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에 살이 많은 분
- ☑ 하체 근육이 부족하여 다리에 힘이 없는 분
-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

멋진 뒤태를 만들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동작을 알려 드립니다.

JUMP SQUAT　탄력 있는 다리 라인을 만들어주는 점프 스쿼트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② 엉덩이를 무릎 높이까지 내리고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습니다.

③ 팔을 힘껏 뒤로 밀면서 점프했다가 가볍게 내려옵니다. 스쿼트 자세로 돌아온 후 동작을 반복합니다.

LUNGE　허벅지와 엉덩이 탄력을 주는 런지

① 두 발을 골반너비로 벌린 후, 허리에 손을 대고 바로 섭니다.

②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왼발의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며 천천히 내려갑니다.

③ 하체의 힘을 이용하여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 실시합니다.

WIDE SQUAT　하체 라인을 매끈하게 가꿔주는 와이드 스쿼트

① 두 손으로 허리를 잡고, 두 발은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려 발끝을 45도 정도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② 무릎이 안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③ 안쪽 허벅지와 엉덩이에 긴장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옵니다. 동작을 반복합니다.

세아 뉴스

그룹 뉴스

2018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세아홀딩스는 10월 1~2일 양일간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하였다. Global SeAH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우수인재 확보 차원으로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120여 개 기업, 약 2,5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가하였다. 세아는 올해로 3번째 참가이며, 본 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3명의 외국인(중국 2명 / 멕시코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세아는 금번 행사를 비롯해 앞으로도 그룹 주요 해외거점 국가를 대상으로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

체력증진실 개소식

지난 8월 20일 군산공장은 업무로 지친 임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R&D센터 1층에 체력증진실을 오픈하였다. 체력증진실은 기존에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의 구조를 변경하여 약 50여 평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런닝머신, 싸이클, 프레스 기구 등 총 19종의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춰 임직원들의 체력 지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은편에 쾌적한 시설의 샤워실을 마련하여 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현장 작업 후에도 땀에 젖은 몸을 씻을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휴게실과 탁구장도 운영하여 개인의 임직원이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직원들은 "평소에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실천할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 가까운 곳에 체력단련실이 생겨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세아창원특수강

KIMS TECHFAIR 2018 전시회 참가

세아창원특수강은 9월 11일~12일 양일에 걸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IMS TECHFAIR 2018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KIMS 재료연구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KIMS TECHFAIR는 2년마다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재료연구소의 보유 기술을 이전, 공유하여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KIMS 패밀리기업관에 부스를 제공받아 STS, 특수합금, 공구금형강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전시하여 회사 주요 제품 및 신제품을 홍보하였다. 또한 이정현 과장은 '무계목강관 산업 동향과 수요 전망'에 대한 기술세미나 발표를 진행하였다.

세아씨엠

2018년 소방합동훈련 실시

9월 18일, 세아씨엠 군산공장에서 2018년 소방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당사 및 협력사 임직원 70여 명과 소방관 10명이 참석하였다. 매년 진행하는 행사지만 군산공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신고 전파 체계, 소화 진화 작전, 유도, 대피 방법 숙지, 환자 응급조치 등을 배우고 인지하여 실전에서도 초기 진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우동정

세아홀딩스

출산
송이보담 경영지원팀

세아제강

입사
김유정 군산공장 생산팀
정지윤 창원공장 품질경영팀
박찬진 창원공장 업무지원팀

결혼
박운용 포항공장 생산3팀
최진희 포항공장 물류팀
기홍석 군산공장 품질경영팀

출산
이 찬 포항공장 설비보전팀
류성록 순천공장 품질경영팀
이금송 군산공장 품질경영팀
선민석 군산공장 업무지원팀

조의
최용규 포항공장 물류팀(모친)
홍석현 창원공장 생산팀(모친)

세아베스틸

결혼
이근식 연주팀
허정범 소형압연팀

조의
이제열 안전환경팀(빙부)
강병휘 에너지관리팀(빙부)
권정태 재경팀(빙부)

세아창원특수강

출산
강태봉 2제강팀
김호영 2제강팀
배신우 소형압연팀

조의
우지민 안전환경팀(부친)
장동철 제강설비팀(부친)
황철수 자재관리팀(부친)
권수현 대형압연팀(모친)
손정구 강관단조설비팀(모친)
공점표 품질보증팀(모친)
이숙희 2제강팀(빙모)

세아특수강

출산
김완중 서울 선재영업팀

조의
김원호 포항 생산팀(빙부)
어필선 서울 봉강영업팀(빙부)
안기환 포항 생산팀(빙모)

세아씨엠

입사
최대용 생산팀

세아 FS

입사
박상진 평택공장 기술연구소

조의
조순종 광주공장 생산팀(빙모)

세아 ESAB

입사
윤도경 재경팀
장유일 재경팀
권주성 재경팀

세아 M&S

입사
안상연 기술연구소

출산
김현성 생산팀

세아 L&S

출산
박진민 국제물류팀
백성수 판재영업1팀

조의
김진원 국제물류팀(부친)

세아엔지니어링

출산
박형내 생산팀
박환경 품질보증팀

조의
정광양 서비스팀(빙부)
김경남 비상용발전기(빙모)

독자엽서

Blooming&me
북유럽 우드 유리돔 조명
(북금 곰 디자인 일괄 발송)

**세아 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다음호 독자 의견에 선정되신 분께는 겨울의 정취와 따스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해줄 우드 유리돔 조명을 선물해 드립니다.**

* 독자엽서 내용은 우편뿐만 아니라 yujin.lee@seah.co.kr (이유진 대리)로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보 내용이 점점 풍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마토크에서 좀처럼 많이 접할 수 없었던 계열사 임직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계열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안창호

학술포럼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페라 작품을 어떤 시각에서 설명하고 보여줬을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 학술포럼은 국내 오페라 업계와 음악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세아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내년 학술포럼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박수인

INOX TECH 이야기를 읽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 세아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인장님의 모습에서 인자함과 강인함이 느껴지네요. 철강 선진시장인 유럽에서 대한민국 강관회사를 대표해 유수의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한석남

그 동안의 원데이 클래스 체험 테마 중 이번 테마가 가장 와 닿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로만 접하던 유기견에 대한 정보를 세아에서 직접 체험하고 소개하니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실천에 대해 다짐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이기백

<세아가족> 사보기자

노승미 세아제강 인사팀(서울)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강관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순천)
황미라 세아제강 부산영업1팀(부산)
이정준 세아베스틸 기획팀(서울)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군산)
허지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창원)
최성희 세아씨엠 업무지원팀(군산)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여환진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고소영 세아 FS 인사기획팀(서울)
안광수 세아 FS 업무지원팀(평택)
정재원 세아 ESAB 경영전략팀(창원)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부산)
김재홍 세아 M&S 경영지원팀(서울)
김진우 세아 L&S 재경기획팀(서울)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대전)
이상기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포항)
박솔향 세아네트웍스 인사팀(서울)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대리 yujin.lee@seah.co.kr / 02-6970-0093